

# “학생위한 적극 행정” 한 목소리

##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 부교육감 출석 정책질의 교육행정 적극성 주문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7일 임시회에서 황홍규 부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해양안전체협관’ 설치에 대한 도교육청의 늦장행정과 예산불통을 질타했다.

그는 “지난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안전을 특화해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관 설치를 예산 탕감으로 돌리는 도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교육청의 늦장행정으로 인해 도내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안타깝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의 3기 교육공약과 관련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교육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돼야 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복지체계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울러, 그는 군산월명초등학교 부지에 군산수영장 등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의 무책임한 교육행정에 대해 “도민과 시민 그리고 교육수혜자들의 복지를 위해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큰 목소리를 냈다. 또한 그는 무상교육 실시에 대해

“최근 핵가족시대의 가정에서는 교육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상교육을 통해 가정의 교육비용 감소와 도내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사립학교의 운영과 교육인사에 대해 “사립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학교교육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학교자치의 민주화를 위해 학생인권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학교밖 청소년과 학교교육 관리실태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기관과 현장 모두가 케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면서 “이울러,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에 효율화를 위해 행정의 집중

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공교육이 작금의 현실에서 전북교육을 다시 세우는 것이 당면 과제임과 동시에 교육혁신의 시대적 요구에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한 만큼, 도교육청의 행정도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약수하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터부스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 김부겸 장관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 행안부 출입기자단에 입장문 보내 거취 밝혀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불출마한다.

김 장관은 17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 7월1일 저는 개각이 있을 때까지 오직 장관으로서의 직분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지만 저는 8·25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직에 머무는 날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한 시도 긴장을 풀지 않겠다.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

서 우리 당이 집권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도록 간절한 애당심을 간직하겠다”며 “국민들은 우리 당에 걸여주신 기대가 너무나 크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훌륭한 지도부가 구성돼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 간에 협치가 활짝 꽃 피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자신의 거취를 밝히는 이유도 밝혔다.

그는 “개각과 저의 출마 여부가 연동돼 버렸기 때문이다. 개각과 입후보가 모두 연일 소문만 무성할 채 지체되는 것도 저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가 먼저 불출마를 밝혀 대통령께 드린 부담을 스스로 결자해지하고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경제산업국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7일, 제355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원,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전라북도의 경제 심장성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에 대해 질의했다.

최영신 의원(정의당 비례)은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정부의 산업용섬유, 스마트리류, 등 글로벌 선도가

업 육성을 통한 ‘세계 5대 섬유패션 강국 재진입’을 목표로 한 정책과 연계해 전북 섬유산업의 부흥을 위한 전라북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군산조선소, GM군산공장, 벅솔론 등 우량기업 이탈과 생산악화가 맞물리며 일자리를 잃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보다 철저한 일자리창출 정책과 고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광근 의원(전주2)은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투자에 따른 과급효과가 미흡해 탄소정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 당권주자 유성엽 ‘경제정당 평화당’ 제안

### 기자회견서 정견 발표 “현재 경제는 위기, 원인부터 찾아야”... 전 정권 경제정책 분석

유성엽(민주평화당, 정읍·고창) 의원이 17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당 평화당’을 만들기 위한 정견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하며, “이대로 가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박근혜 정권 때 보다도 낮은 2% 중반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에는 길게 동의하지만, 실물 경제에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

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등이 재정지출만 가속화 하고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는 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실 지금과 같은 경제난 속에서는 어떠한 미시적 경제 정책도 소용이 없는 소위 ‘백악이 무효한 상황’이라면서, 경제난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중 시절 5.32, 노무현 정권 4.48%에 달했던 경제 성장률이

이명박 때 3.2, 박근혜 때는 3% 에도 못 미친 2.97에 불과”하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제실정에서 지금 경제난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전 정권 경제정책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했다.

유 의원은 “소화 불량이 심각한데, 감기약을 처방해서는 소용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평화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 경제난의 원인을 찾는 것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도의회 문건위 의정활동 돌입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며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정호윤 위원장을 비롯한 문건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군산 GM 공장 사태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도민이 주신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는 길임을 천명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한국당 전국위, 김병준 비대위원장 만장일치 추진

자유한국당이 17일 당 쇄신을 맡을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진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 총 631명중 3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위를 열고 전날 내정된 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확정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혁신 비대위원장이 무탈하게 선출되는 것이 아말로 한국당이 부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산고 끝에 총의를 모아

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교수를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모쪼록 김병준 혁신비대위가 무탈하게 출항해서 순항할 수 있도록 전국위원들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오늘 전국위가 마무리되면 저는 본연의 업무인 원내대표로 돌아갈 것”이라며 당 대표 권한대행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23일까지 비대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 /뉴시스

2018  
수레박  
물축제

불중음부위! 물만남물축제!

2018. 07. 27(금) - 07. 29(일)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 일원

주최·주관 무주읍·무주읍발전협의회

축제일정

요일별	일시	시간	행사명	장소
7월 27일 금요일	11:00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수중축구장
			무주군 동아리 공연	
	18:40		래시가드 패션쇼	메인무대
			EDM 파티	
7월 28일 토요일	11:00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수중축구장
			전국퍼포먼스댄스대회	
	18:00		식전공연	메인무대
			개막식	
			축하공연 [홍진영]	
			불꽃놀이	
20:45		EDM 파티		
7월 29일 일요일	16:00		전국배틀댄스대회	메인무대
			영화상영	